

# 한·일 양국어 어휘의 의미 분야별 대응 양상

- 자연물 및 자연현상을 중심으로 -

이 명 주\*

itsumosiawase@yahoo.co.kr

## 차례

1. 들어가며
2. 연구자료와 방법
3. 연구결과
4. 마치면서

## 요지

本稿は、日韓両言語の語彙面における対照研究の一つの試みである。単語は命名の単位で、単語の意味は現実を反映する。ここでは、日本語の語彙が外界をどのように捉え、またどのように表わしているか、そして韓国語と比べてどのような特徴があるかを調べ、両言語の類似点や相違点をあきらかにしようとするを目的とする。特に、単語の対応関係に重点を置いて意味分野別に両言語の語彙の構造を比較分析する。『分類語彙表』の「体の類」の1.5自然物及び自然現象に分類されている9119語を、日韓辞書を用いて韓国語との対応関係を調査し、その関係を明らかにする。調査の結果、自然物及び自然現象を表わす日本語の語彙量は、最も多い意味分野は1.51物質で、一番少ない分野は1.53生物であることがわかった。そして、韓国語に対応する比率は全体語彙の約85%で、15%程度の日本語の単語は韓国語に対応しない結果となった。つまり、15%程度の日本語の単語は、韓国語には対応する単語がないので、同じ事物や事項を表現するにはその形式を異にするしかなく、これは文の構造にも影響を及ぼすの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る。両言語は漢字文化圏に属していて中国語の影響を大いに受けているので、漢字の表記や語彙面においても共通点を持っているが、語構成面からの表現の差も見られる。今後は、一方の基準に基づく研究ではなく、同じ程度の語彙量をもって意味領域別の対照が行なわれることが期待される。

**키워드** : 의미분야, 어휘량, 대응관계, 어종

\*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 1. 들어가며

한국어와 일본어는 언어 자체는 다르지만 언어문화와 발상면에서 공통점이 적지 않으며, 특히 어순이나 조사를 사용하는 점을 비롯하여 문법 구조에서 유사점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며 어휘도 그 중의 하나일 것으로 생각된다.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단어는 언어의 구성 요소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단어의 양은 의미 분야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金田一春彦<sup>1)</sup>에 의하면 고유 일본어에는 자연을 나타내는 어휘가 풍부하다고 하며 그 중에서도 비·바람과 관련된 단어가 많다고 한다. 또한 그는 일본어에는 지형과 물, 식물에 관한 단어가 많고 동물에서는 물고기와 새, 벌레를 나타내는 단어가 많으며 광물명과 별, 가축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가 적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어는 의미의 구성면에서 어떤 부분의 어휘가 많고 적을까? 본고에서는 일본 국립국어연구소편 『分類語彙表』<sup>2)</sup>를 사용하여 한·일 양국어 어휘의 의미분야별 대응 양상을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양국어 어휘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어휘의 체계 연구에서는 신체 어휘나 친족 어휘 등 한정된 의미 분야 속에서 기본적인 단어끼리의 의미 관계를 대응하여 이를 한국어와 대조한 연구가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이 특정 의미 분야 전체로 범위를 확대시켜 양 언어를 대조한 연구는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없어<sup>3)</sup> 의미의 대응 관계를 바탕으로 한 어휘의 대조연구는 새로운 시도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는 한·일 양국어 어휘의 대응 양상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려는 필자의 연구의 일부로서 이번 연구에서는 자연물 및 자연현상에 관한 의미분야를 선택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수록 단어수가 약 9만 5천에 달하는 『分類語彙表』(이하 본고에서는 분류어휘표로 칭한다.)에서 의미분야 「自然物および自然現象」에 분류된 약 9천개의 단

1) 金田一春彦(1990) 『日本語の特質』, 日本放送出版協会, pp.120-151

2) 2003년에 발행된 증보개정판을 말한다.

3) 양 언어의 어휘비교표를 완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연구로는 한유석의 논문 「韓國語の語彙分類表の作成方法—日韓兩言語の語彙比較のために—」 『日本語論考6 語彙と意味』(1999, 名古屋 ことばのつどい編集委員会編, 和泉書院)이 있다.

어를 추출하여 각 단어마다 일한사전을 이용해서 한국어 의미를 대입시켜 양국어의 대응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 2. 연구자료와 방법

이번 연구에 사용한 자료와 연구 방법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2.1 연구자료

#### 2.1.1 분류어휘표의 성격과 선정 이유

분류어휘표는 하나의 언어 체계 안에서 그 어휘를 구성하는 각각의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단어가 나타낼 수 있는 의미의 세계를 분류해서 그 분류의 각 항목에 단어를 배당한 것이다.

분류어휘표의 구성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선 크게 「体の類」「用の類」「相の類」「その他の類」의 네 개의 상위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여기에서 「体の類」는 명칭을 나타내는 명사류이고 「用の類」는 존재나 활동을 서술하는 동사류이며 「相の類」는 상태를 서술하는 형용사·형용동사·부사·연체사류 그리고 「その他の類」는 일부 부사·접속사·감동사이다. 이 네 가지 「類」는 다시 「抽象的關係」「人間活動の主体」「人間活動—精神および行為」「生産物および用具」「自然物および自然現象」의 다섯 「部門」으로 분류되어 있고<sup>4)</sup>, 그 하위에 총 94개의 「中項目」(이하 “중항목”이라 칭한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1964년에 간행된 원판에는 없는 체계이다. 마지막으로 중항목의 하위 항목으로 895개의 「分類項目」이 있다. 이와 같은 분류 방식을 통하여 수록된 단어수는 약 9만 5천에 달한다. 분류어휘표의 구성과 중항목의 수, 분류항목의 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用の類」와 「相の類」에는 「人間活動の主体」「生産物および用具」의 「部門」은 없다.

〈표1〉

類	部門	中項目數	分類項目數
体の類	抽象的關係	10	141
	人間活動の主体	8	55
	人間活動—精神および用具	9	174
	生産物および用具	8	78
	自然物および自然現象	8	62
用の類	抽象的關係	8	76
	人間活動—精神および用具	9	148
	自然物および自然現象	5	25
相の類	抽象的關係	10	60
	人間活動—精神および用具	7	37
	自然物および自然現象	6	16
その他の類	(無)	6	23
合計		94	895

존재하는 모든 단어를 대상으로 고찰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나 한 언어의 단어는 수십만 또는 그 이상으로 정확한 수를 헤아릴 수 없으므로 개인적인 연구로서는 불가능하여 우선 부분적인 대조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 점에서 분류어휘표는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에서 실시한 빈도조사의 고사용률 어휘를 모체로 하여 초중등 국어 교육의 기본 어휘에서 중복하지 않는 단어로 구성되었고, 의미의 세계를 분류해서 그 분류의 각 항목에 단어를 배당한 것으로 분류의 각 항목에는 동의의 단어가 모이게 되어 의미 분야에 따른 한국어와의 대조에 있어 편리한 구성이므로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 2.1.2 연구 범위

분류어휘표는 현대의 일상사회에서 보통 사용되는 단어<sup>5)</sup>를 중심으로 각종 어휘 조사 결과 선정된 단어를 모은 것으로 별개어수는 79516인데 하나의 단어가 복수의 분류항목으로 분류되는 것도 있으므로 수록 총단어수는 95811이다.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 의미 분야 1.5 自然物および自然現象에 분류된 약 9천 단어

5) 문법상 자립하는 단어를 기본으로 하지만 그와 같은 의미상의 기능을 하는 연어, 접사, 관용구 등도 포함한다.

를 고찰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 415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일한사전에 수록되지 않아 한국어로 어떻게 대응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사용한 일한사전은 전부 3권으로 현재 한국에서 출판되고 있는 일한사전 중에서는 표제어가 많은 편에 속하지만 그 수는 약 10만을 넘는 정도여서 가끔 뜻을 알고자 하는 일본어 단어가 한국어로는 어떤 단어로 대응되는지, 어떤 뜻을 지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표2>는 의미 분야별로 3권의 일한사전의 어느 한 곳에도 수록되지 않아 연구에서 제외한 단어의 수이다.

<표2> 연구에서 제외된 의미분야별 단어의 수

의미분야	1.50 自然	1.51 物質	1.52 天地	1.53 生物	1.54 植物	1.55 動物	1.56 身体	1.57 生命	합계
단어수	46	52	38	4	85	137	33	20	415

위의 표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주로 개별적인 나무, 풀, 동물, 조류, 어류, 곤충의 명칭들이다. 이 단어들은 일한사전에는 없지만 한국의 식물도감이나 어류도감 등에는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명칭들이 한국어에도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나 본 연구에서는 제외한다.

## 2.2 연구 방법

### 2.2.1. 의미 대응

먼저 분류어휘표의 1.5 自然物および自然現象 항목에 분류된 9119개의 단어 하나 하나에 일한사전을 이용하여 한국어 의미를 대응시킨다. 의미 대응을 위해 사용한 일한사전은 현재 출판되고 있는 사전들 중에서 되도록이면 수록 단어수가 많고 출간연도가 최근의 것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한 출판사의 한 사전을 참고로 할 경우 기술된 한국어 의미와 설명 등이 적절한 것인지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출판사와 편자가 다른 사전들을 복수 이용하였다. 의미 대응에 사용한 일한사전은 다음과 같다.

『일한사전』(2쇄), 2005, 운평어문연구소편, 금성출판사

『엣센스 일한사전』(제3판), 2004, 安田吉美의 편저, 민중서림

『프라임 일한사전』(제3판), 2006, 두산동아출판부, 두산동아

9119개의 일본어 단어에 한국어 의미를 대응시키는 작업을 한 결과, 415개의 단어는 위에 명시한 세 권의 일한사전 어느 한 곳에도 표제어로 나오지 않았다. 이 중 308개의 단어는 『日本国語大辞典』이나 『広辞苑』 등에 표제어로 등장하지만 107 단어는 수록단어 50만을 넘는 『日本国語大辞典』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는데, 이 단어들의 특징은 대부분이 복합어이거나 전문분야에서 쓰이는 용어들이다. 이는 분류어휘표의 단어 선정 기준이 일반 사전 편찬의 기준과 달라서 생기는 차이일 것이라 생각된다. 비록 308개의 단어는 일본에서 출판된 일본어 사전에는 표제어로 나와 있더라도 일한사전에는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고찰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그 이유는 일본어 사전 등을 참고로 하여 그 뜻을 짐작할 수는 있으나 적절한 한국어 단어나 표현을 필자 마음대로 생각해서 대응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일한사전에 없는 415개의 단어를 제외한 8704개의 단어를 고찰 대상 단어로 삼았다.

### 2.2.2. 대응 단어 유무 확인

다음으로 각각의 일본어 단어에 대응되는 한국어 단어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즉 한국어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표시하였는데 이 때 일한사전의 단어 설명에 나오는 한국어 단어들이 실제 쓰이는 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국어사전의 표제어를 조사했다. 복합어의 경우도 기술된 한국어가 국어사전에 표제어로 나오는 것은 대응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의미 대응시 참고로 한 사전의 표제어가 몇십만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없는 단어가 상당수 있다. 그 이유는 분류어휘표에 수록된 단어들에는 활용된 형태나 구 관용 표현, 속담 등 일반적인 단어 이상 단위의 표현이 많고 복합어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어 단어의 유무 확인에 이용한 국어사전은 다음과 같다.

『동아 새국어사전』(제5판), 2005, 이기문 감수, 두산동아

『연세 한국어사전』(9쇄), 2005,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두산동아

『표준국어대사전』, 1999, 국립국어연구원, 두산동아

『국어대사전』, 2003, 이희승, 민중서림

### 2.2.3. 대응 관계 분류

위의 2.2.2에 명시한 국어사전으로 조사한 단어들은 그 대응 방식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각 대응 관계의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어 단어에 한국어 단어가 1:1로 대응이 되는 관계이다. 이 대응 관계로 분류하는 단어는 어종면에서 한자어<sup>6)</sup>와 외래어<sup>7)</sup>, 그리고 혼종어의 일부<sup>8)</sup>이다. 양 언어는 언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표현되는 음성 형식이 다르나 각 언어에서 음독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양 언어에서 어종을 달리하여 표현하지 않고 일본어의 한자어는 한국어에서도 한자어로 외래어는 외래어로 혼종어는 혼종어로 동일하게 대응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한자의 표기<sup>9)</sup>나 혼종어의 내부 어구성도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이 관계에 속하는 단어를 어종별로 몇가지씩 무작위 추출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안은 대응 한국어이다.

#### <한자어>

宇宙(우주), 液状(액상), 塩分(염분), 凝血(응혈), 近海(근해), 原子(원자), 効果音(효과음), 高周波(고주파), 酷寒(혹한), 酸味(산미), 自然(자연), 深山(심산), 羅万象(삼라만상), 水蒸氣(수증기), 赤外線(적외선), 石油(석유), 沖積平野(충적평야), 日光(일광), 熱風(열풍), 保護色(보호색) 등

#### <외래어>

アーモンド(아몬드), エルにーニョ(엘니뇨), オリオン(오리온), カロチン(카로틴), コアラ(코알라), シリコン(실리콘), ハイライト(하이라이트), ブラック(블랙), ホルモン(호르몬), マグネシウム(마그네슘), ミイラ(미라) 등

#### <혼종어>

アルカリ性(알칼리성), カルデラ湖(칼데라호), 酸化カルシウム(산화칼슘), ジェット気流(제트기류), チフス菌(티프스균), バンアレン帯(밴앨런대), バンゲア大陸(판게아대륙), リアス式海岸(리아스식해안), リンパ腺(림프선) 등

6) 본고에서는 한자표기어휘를 말한다.

7) 본고에서는 서양에서 유입된 단어로 カタカナ 표기 단어를 일컫는다.

8) 한자어+외래어 또는 외래어+한자어의 경우만을 말한다.

9) 한국어에서는 보통 구자체가 사용되나 「学」과 같이 일본의 신자체가 한국에서 통하는 한자는 동형어로 간주하였다.

둘째, 위에서 설명한 1:1 대응 관계는 아니지만 일본어에 대응되는 한국어가 어떤 형식으로든 존재하는 관계이다. 일본어와 한국어 모두 고유어로 표현되는 경우와 일본어와 한국어에서 대응하는 어종이 다른 경우도 이 대응 관계에 해당된다. 즉 일본어에서는 혼종어<sup>10)</sup>이지만 한국어에서는 한자어인 경우, 일본어에서는 고유어이나 한국어에서는 한자어인 경우 등 그 표현 방법에는 여러 가지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단어가 이 관계에 속한다. 어종별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안은 대응 되는 한국어이다.

### <고유어>

足音(발소리), 雨水(빗물), うに(성게), かゆみ(가려움), 霧雨(안개비), けぶり(연기), たこ(문어), 力こぶ(알통), つらら(고드름), 並木(가로수), にきび(여드름), のど(목), 初霜(첫서리), ひこ星(견우성), ひとみ(눈동자), 水虫(무좀), 胸(가슴) 등

### <혼종어>

インド象(인도코끼리), シャム猫(샴고양이), 女王ばち(여왕벌), 電場(전장), 残り香(잔향), 南十字星(남십자성) 등

셋째, 일본어에는 단어가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단어가 없는 대응 관계이다. 여기에 속하는 일본어 단어들은 주로 한국어로 표현될 때는 둘 이상의 단어 또는 긴 설명으로 풀이가 되는 것들로 한국어에서는 하나의 단어로 대응되지 않는다. 이 관계에 속하는 단어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안은 일한사전의 풀이를 옮긴 것이다.

あがり湯 (목욕이 끝난 후 탕에서 나올때 몸에 끼얹는 깨끗한 물)  
 落ちあゆ (가을에 산란하러 강에서 바다로 내려가는 은어)  
 きっくり腰 (갑자기 허리가 삐끗하여 아프고 움직일 수 없게 되는 병)  
 着やせ (옷을 입으면 도리어 여위어 보임)  
 草いきれ (풀숲에서 풍기는 훗훗한 열기)  
 狂い咲き (제철이 아닌 때에 꽃이 필)  
 所帯やつれ (살림에 쪼들려 궁한 티가 남)

10) 일본어에서 표기는 한자로 되어 있으나 혼독되는 단어들로 한국어에서는 음독되어 한자어로서 인식되는 단어를 말한다.



不知火 (여름밤 바다 위에 무수한 불빛이 깜박이는 현상)  
 すそ風 (앉았다 일어날 때 옷자락에서 일어나는 공기의 움직임)  
 梅雨冷え (장마철에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는 일)  
 手暗がり (손그늘이 저서 어두움)  
 ぬれ色 (물에 젖은 것 같이 윤나는 색)  
 寝乱れ髪 (자고 나서 흐트러진 머리)  
 根雪 (말에 깔려 봄의 해빙 때까지 녹지 않고 남는 눈)  
 花明り (벚꽃이 만발하여 밤에도 주위가 조금 흰하게 보이는 일)  
 秘湯 (사람들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은 온천)  
 ピンぼけ (핀트가 맞지 않아 화상이 흐려짐)  
 吹きだまり (바람에 날리어 눈, 나뭇잎 등이 쌓인 곳)  
 袋耳 (한번 들으면 잊지 않음)  
 焼き色 (식품을 구웠을 때 겉에 생기는 빛깔) 등

### 3. 연구결과

#### 3.1 의미 분야에 따른 어휘량 고찰

양 언어는 문법적 특성과 한자 사용 그리고 동양이라는 문화적인 사항 등 공유하는 부분이 많아서인지 어휘의 양적 구조에 있어서도 대체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이번 조사의 범위인 분류어휘표의 1.5 自然物および自然現象의 의미 분야별 단어수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표3〉 의미분야별 분류항목의 수와 단어수

의미분야	1.50 自然	1.51 物質	1.52 天地	1.53 生物	1.54 植物	1.55 動物	1.56 身体	1.57 生命	합계
분류항목수	8	16	10	1	5	7	9	6	62
단어수	904	1784	1030	163	1263	1223	1414	1338	9119

가장 단어수가 많은 의미 분야는 1.51 物質인데 비·눈·바람·구름 등과 날씨나 기상을 표현하는 단어 그리고 물·불·광물·원소 등 자연물 중에서도 인간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단어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생활에서 필요한 현상이

나 상황 또는 사물 등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일상 생활과 관계가 깊지 않는 분야에 비해 더욱 세분화하여 여러 가지 단어를 형성한 결과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가장 단어수가 적은 의미 분야는 1.53 生物로 이 분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어는 단어의 표면적인 의미 그대로 생물체 전반에 관한 단어들 즉 총류의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들과 자연과학의 발달로 근·현대에 들어와서 알게된 물질<sup>11)</sup>의 명칭들이다. 단어는 무엇인가를 표현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과학이 더욱 발달하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물질들이 발견될 것이고 그것을 지칭할 새로운 명칭도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명칭들이 일본이나 한국에서 쓰여져 단어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게 되면 1.53 生物 분야의 단어들은 그 수가 점차 증가할 것이라 생각된다.

### 3.2 대응 관계에 의한 어휘량 고찰

여기서는 앞서 언급한 2.2.3 대응 관계 분류에 의한 분석을 토대로 각 대응 관계별 어휘량을 살펴보고자 한다.

#### 3.2.1 일본어와 한국어가 1:1로 대응되는 관계

자연물 및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일본어와 대응하는 한국어가 1:1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수를 의미분야별로 제시하면 <표4>와 같다.

<표4> 일본어와 한국어 1:1 대응 관계의 단어수(( )안은 각분야의 전체단어수)

의미분야	1.50 自然	1.51 物質	1.52 天地	1.53 生物	1.54 植物	1.55 動物	1.56 身体	1.57 生命	합계
단어수	494 (904)	1051 (1784)	625 (1030)	143 (163)	366 (1263)	303 (1223)	676 (1414)	1338 (1338)	4557 (9119)

자연물 및 자연 현상을 표현하는 전체 단어 9119개 중에서 한국어와 1:1 대응을 이루는 단어는 4557개로 약 50%정도이다. 이 중에서 1.50 自然, 1.51 物質, 1.52 天地의 세 분야에 분류된 단어들은 대체로 55~60%정도가 1:1 대응을 이루고 있으므로 전체

11) 예를 들면, 단백질, 포도당, 효소 등의 한자표기단어와, 펩신, 콜레스테롤, 페니실린 등의 외래어이다.

평균 수치에서 생각할 때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56 身体와 1.57 生命 분야는 각각 48%와 67%의 1:1 대응 비율을 나타내어 평균치에서 다소 벗어나는 결과가 나왔다.

한편 이 대응관계에서 주목할 분야는 1.53 生物과 1.54 植物, 1.55 動物 분야의 단어수이다. 위의 수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53 生物 분야의 단어는 20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한국어와 1:1 대응을 이루고 있다. 이 20개의 단어도 그 내력을 살펴보면 1:1 대응 관계는 아니지만 대응하는 한국어가 있는 단어가 10개이고, 일한사전에 나와있지 않아 대응관계조사가 불가능한 단어가 4개이다. 결국 한국어와 대응되지 않는 단어는 분류어휘표의 표제어 중 “生きとし生けるもの, 知性体, 生類(しょうるい), エイリアン, 絶滅危惧種, 絶滅種”의 6개뿐이다. 그러나 이 중의 몇 단어는 사전에 표제어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한국어에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단어들이므로 1.53 生物 분야의 1:1 대응 비율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분야의 어휘는 양국에서 옛날부터 쓰였던 각각의 고유어가 아니라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인해 근·현대 들어와서 새롭게 생긴 단어들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양국에 유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1.54 植物과 1.55 動物 분야의 단어는 반대의 양상을 나타낸다. 두 분야 모두 1:1 대응 비율이 30%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고유어와 혼종어<sup>12)</sup>로 대응되는 단어가 많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각 의미분야별로 1:1 대응관계에 있는 단어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50 自然>

花鳥(화조), 五輪(오륜), 天然(천연), 風月(풍월), イオン化(이온화), 万有引力(만유인력), 放射能(방사능), 一閃(일섬), オーロラ(오로라), 遮光(차광), レーザー(레이저), アイボリー(아이보리), 褐色(갈색), 群青(군청), 三原色(삼원색), 音階(음계), 和声(화성), スラー(슬러), 旋律(선율), ハーモニー(하모니), 悪臭(악취), 香氣(향기), 芳香(방향), 風味(풍미), 汚染(오염), 純正(순정), 毒性(독성), 濃縮(농축) 등

#### <1.51 物質>

液晶(액정), 環境ホルモン(환경호르몬), オゾン(오존), 重金属(중금속), 排気ガス(배

12) 외래어+한자어와 한자어+외래어를 제외한 혼종어를 말한다.

기가스, 飲料水(음료수), 乾燥(건조), ミネラルウォーター(미네랄워터), 地震(지진), 水害(수해), 温室効果(온실효과), 三寒四温(삼한사온), 海陸風(해륙풍), ハリケーン(허리케인), 雲霧(운무), 高層雲(고층운), 豪雨(호우), プリザード(블리저드), 蜃気楼(신기루), 干潮(간조), 暖流(난류), 風浪(풍랑), 沸騰(비등), 燒却(소각), 過熱(과열), 保温(보온) 등

### <1.52 天地>

銀河系(은하계), 人工衛星(인공위성), 北斗星(북두성), 自轉(자전), 日没(일몰), カルス南極(남극), 海岸段丘(해안단구), カルデラ(칼데라), 荒原(황원), 山脈(산맥), ツンドラ(툰드라), 平野(평야), オアシス(오아시스), 淡水湖(담수호), 珊瑚礁(산호초), ジャングル(정글), 針葉樹林(침엽수림), 林野(임야), 氣候帶(기후대), 赤道(적도), 油田(유전), 佳景(가경), 絶勝(절승), パノラマ(파노라마) 등

### <1.53 生物>

アミノ酸(아미노산), 栄養素(영양소), カロチン(카로틴), 抗生物質(항생물질), 脂肪(지방), 生態系(생태계), 單細胞生物(단세포생물), ペニシリン(페니실린), 兩性(양성) 등

### <1.54 植物>

街路樹(가로수), 高山植物(고산식물), 清淨野菜(청정야채), 地衣類(지의류), ハーブ(허브), 盆栽(분재), アボカド(아보카도), 月桂樹(월계수), 百日紅(백일홍), 楊柳(양류), レモン(레몬), アネモネ(아네모네), チューリップ(튤립), 福寿草(복수초), 陸稻(육도), クロレラ細菌(세균), バクテリア(박테리아), 果実(과실), 花粉(화분), ココナッツ(코코樹脂(수지), 麦芽(맥아) 등

### <1.55 動物>

愛玩動物(애완동물), 禽獸(금수), 冷血動物(냉혈동물), オランウータン(오랑우탄), 家畜警察犬(경찰견), 珍獸(진수), ハイエナ(하이에나), 盲導犬(맹도견), 類人猿(유인老馬(노마), 害鳥(해조), ベリカン(펠리컨), 野鶴(야학), イグアナ(이구아나), 爬虫類回遊魚(회유어), 稚魚(치어), ピラニア(피라니아), 益虫(익충), 幼虫(유충), ア肺ジストマ(페디스토마), ロブスター(로브스터) 등

### <1.56 身体>

下半身(하반신), 骨格(골격), 体内(체내), 肥滿(비만), 外耳(외이), 水晶体(수정체),

瞳孔(동공), 胃(위), 海綿体(해면체), 義足(의족), 魚鱗(어린), 血球(혈구), 交感神經(교감骨髓(골수), 視床下部(시상하부), 受精卵(수정란), 靜脈(정맥), 心室(심실), 頭前膊(전박), 大腿骨(대퇴골), 胆囊(담낭), 皮下脂肪(피하지방), 副腎皮質ホルリーゼント(리젠트), 롱그ヘア(롱헤어) 등

<1.57 生命>

胃炎(위염), 意識不明(의식불명), 遺伝(유전), 鬱血(울혈), 遠視(원시), 嘔吐(구토), 回生(회생), 客死(객사), 割腹(할복), 過勞死(과로사), 急逝(급서), クローン(클론), 血圧(혈압), 後遺症(후유증), 黒死病(흑사병), 銃殺(총살), 出血(출혈), 障害(장애), 頭痛(두통), 成熟(성숙), 前癌(전암), 卒倒(졸도), 打撲傷(타박상), 蓄膿症(축농증), 難聽(난청), ノイローゼ(노이로제), 不治(불치) 등

3.2.2 1:1 대응은 아니지만 한국어에 대응되는 단어가 존재하는 관계

이 대응 관계는 양 언어의 표현 형식 즉 어종이나 표기, 어구성 등은 다르나 한국어에 대응되는 단어가 있는 관계를 말한다. 이 관계에 해당되는 어휘량은 다음의 <표5>와 같다.

<표5> 1:1 대응을 제외한 대응 관계에 있는 단어수 (( )안은 각분야의 전체단어수)

의미분야	1.50 自然	1.51 物質	1.52 天地	1.53 生物	1.54 植物	1.55 動物	1.56 身体	1.57 生命	합계
단어수	211 (904)	457 (1784)	269 (1030)	10 (163)	703 (1263)	669 (1223)	511 (1414)	262 (1338)	3092 (9119)

이 대응 관계는 1.54 植物과 1.55 動物 분야의 어휘에 많이 나타난다. 각 분야의 전체 단어수의 대략 55%씩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어가 1:1 대응 관계를 나타낸 1.53 生物 분야는 당연한 결과로 이 관계에 해당하는 단어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겨우 6개가 존재할 뿐이다. 그 외의 분야 1.50 自然, 1.51 物質, 1.52 天地, 1.56 身体, 1.57 生命을 표현하는 단어는 한국어에서 약 20~35%의 대응을 나타낸다. 이 관계에 속하는 예를 의미분야별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50 自然>

あかいろ  
赤色(적색), 浅黄(연노랑), 味(맛), 稻妻(번개), 後味(뒷맛), 海鳴り(해명), 音(소리),

かおり(향기), 陰(응달), 黒(검정), 星明かり(별빛), 塩味(짠맛), 山びこ(메아리) やみ(어둠), 若紫(연보라) 등

<1.51 物質>

銅(동), 秋雨(가을비), 朝焼け(아침놀), あぶら(기름), 雨風(비바람), 石綿(돌솜), 浮き雲( 뜬구름), うたかた(물거품), 火事(화재), 霧(안개), 切り干し(오가리), 氷(얼음), 粉(가루), 気圧の谷(기압골), ちぎれ雲(조각구름), 雪崩れ(눈사태) 등

<1.52 天地>

空き地(공지), 荒野(황야), 海(바다), おおぐま座(큰곰자리), がけ(벼랑), 狩り場(사냥터), 景色(경치), 空(하늘), 滝(폭포), 月の出(월출), 流れ星(유성), 一つ星(개밥바라기), 坊主山(민동산) 등

<1.53 生物>

雄(수컷), 雌(암컷), いもち病(도열병) 등

<1.54 植物>

青かび(푸른곰팡이), あかぎ(명아주), 小豆(팥), あんず(살구), 稲むら(벼가리), うつぎ(병꽃나무), 枝(가지), 落ち葉(낙엽), 親株(어미그루), からし(겨자), けやき(느티나무), こんぶ(다시마), しいたけ(표고버섯), 大根(무), 南京豆(땅콩) 등

<1.55 動物>

青がえる(청개구리), 家猫(집고양이), 石だい(돌돔), うなぎ(뱀장어), えび(새우), かき(굴), 雁(기러기), 鯨(고래), 猿(원숭이), 千里の馬(천리마), たら(대구), 毒蛾(독나방), とんぼ(잠자리), 働きばち(일벌), 針ねずみ(고슴도치) 등

<1.56 身体>

垢(때), 足の甲(발등), いくび(자라목), 奥歯(어금니), 尾ひれ(꼬리지느러미), 癬毛(곱슬머리), くるぶし(복사매), こめかみ(관자놀이), しわ(주름), そばかす(주근깨), 翼(날개), 生づま(생손톱), 脛(정강이), 鼻水(콧물), 右利き(오른손잡이) 등

<1.57 生命>

青そこひ(늑내장), 命(목숨), 風邪(감기), 傷(상처), くしゃみ(재채기), 鳥肌(소름),

生殺し(반죽음), のたれ死に(논두렁죽음), 早死に(조사), 不死身(불사신), 身投げ(투신), 若死に(요절) 등

### 3.2.3 대응이 성립하지 않는 관계

1.5 自然物および自然現象을 나타내는 단어 9119개 중에서 한국어와 1:1 대응 관계에 있거나, 1:1 대응은 아니지만 표기와 어종 그리고 어구성 요소를 달리하여 대응되는 한국어가 있는 대응 관계의 단어는 총 7649개이다. 바꾸어 말하면 전체 조사 단어의 약 85%에 가까운 단어는 한국어에도 그것을 표현하는 형식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약 15%(<sup>13</sup>)의 단어는 한국어에 대응되는 단어나 표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이 대응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단어 즉 한국어에 표현 형식이 없는 일본어 단어의 수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6〉 대응 단어가 없는 단어수( ( )안은 각분야의 전체단어수)

의미분야	1.50 自然	1.51 物質	1.52 天地	1.53 生物	1.54 植物	1.55 動物	1.56 身体	1.57 生命	합계
단어수	153 (904)	224 (1784)	98 (1030)	6 (163)	109 (1263)	114 (1223)	194 (1414)	157 (1338)	1055 (9119)

한국어에서 대응되는 표현 형식이 없는 일본어 단어는 어휘량의 관점에서는 의미 분야 1.51 物質과 1.56 身体의 순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의미 분야 전체 단어수에 대한 비율로는 1.50 自然이 해당된다.

이는 위의 의미 분야에서는 일본어가 한국어에 비해 어떤 현상이나 상황 또는 구체적인 물질 등을 더 자세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로 생각된다.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하자면 어구성의 차이에 의해서 생긴 결과이기도 하다. 한국어에 대응되지 않는 일본어 단어들의 특징은 접사를 이용하여 생성된 단어이거나 동사의 연용형에서 명사화된 단어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어에 동일한 역할을 하는 접사나 명사형을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없을 경우에는 대부분이 서술형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결국 문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된다.

일본어에는 있으나 한국어에는 없는 표현들 중에서 몇가지 특징적인 분류항목을

13) 이 수치는 전체 단어수 9119개를 기준으로 한것으로 일한사전에 나와있지 않아서 실제 조사에서 제외된 415개의 단어를 고려하면 12%정도의 단어가 한국어로 대응되지 않는 결과가 생긴다.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대응되는 한국어가 없는 일본어 단어가 가장 많은 분류항목은 1.56 身体 중에서 1.5605 皮·毛髮·羽毛 분야로 68개의 일본어 단어에 대응되는 한국어 단어가 없었는데, 특히 일본 고유의 헤어 스타일에 관한 단어들이다. 그리고 1.50 自然 중에서는 1.5020 色을 표현하는 단어가 한국어로 대응되지 않는 것들이 많은데 이 점은 조금 의외의 결과였다. 또한 1.51 物質 중에서는 1.5130 水·乾湿 분야의 단어들도 한국어에서 대응되는 단어를 찾을 수 없었다. 이상의 세 분야의 단어 중에서 몇 개씩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표7〉 대응되는 한국어가 없는 분류항목과 단어의 예

분류항목	단어의 예
1. 5605 皮·毛髮·羽毛	下げ髪, もとどり, 振り分け髪, ざんざり, 島田, 島田まげ, 高島田, 日本髪, 文金高島田, 丸まげ, 桃割れ, お下げ, 切り下げ髪, 総髪, 茶笄髪, 付けまげ, 耳隠し, 引っ詰め, いちょう返し, 三つ編み, ひさし髪 등
1. 5020 色	ぬれ色, ぬれ羽色, 黒さ, すおう, すず竹色, きつね色, あめ色, えび茶, うぐいす色, 若緑, 水浅黄, はなだ色, なす紺, 納戸色, 瑠璃色, 江戸紫, 利休ねずみ, にび色, さび色, 真鍮色, すず色, 三毛, 焼き色, 葉色, 羽色 등
1. 5130 水·乾湿	上がり湯, 産湯, おか湯, 留め湯, さら湯, 新湯, 初湯, 逃げ水, 死に水, 末期の水, 力水, 雑排水, 湯玉 등

## 4. 마치면서

지금까지 한국어 단어와의 대응 관계를 통해서 분류어휘표의 1.5 自然物および自然現象에 분류된 단어의 의미 분야별 어휘량과 한국어와의 대응 비율 등을 알아보았다. 자연물과 자연 현상을 나타내는 일본어에서 가장 어휘량이 많은 의미 분야는 1.51 物質이고, 가장 적은 어휘량의 1.53 生物 분야에는 163개의 단어가 분류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국어와 대응을 이루는 단어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8〉 한국어와의 대응 관계와 단어수

의미분야	1: 1 대응	1: 1 대응 제외한 대응	대응 단어가 없는 경우	연구대상제외단어	합계
단어수	4557	3092	1055	415	9119

한국어와의 대응 비율은 전체적으로 약 85%로, 15%정도의 일본어 단어는 한국어에서는 대응되는 단어가 없으므로 같은 사물이나 사항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표현 형식을 달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일부 단어<sup>14)</sup>는 문화적 차이에서 생긴 것으로 처음부터 한국에는 없고 일본에만 존재하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상황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표현 형식의 차이에서 오는 대응 관계의 유무와는 구별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일한 양 언어는 소위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언어이기는 하나 동일 한자 표기 어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 등 어휘면에서도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다. 하지만 어구성적인 면에서 접사에 의한 단어 형성과 동사 연용형의 명사화에 의한 표현 등 한국어에서 그 대응을 찾을 수 없는 단어도 상당수 있어 이는 문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일본어를 기준으로 하여 한국어와의 대응 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한 결과이기 때문에, 의미 대응시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국어사전에는 실제 존재하는 한국어 단어가 있을 것이다. 즉 한국어에는 있고 일본어에는 대응되는 단어가 없는 단어가 존재할 것이므로 한국어를 기준으로 조사할 경우에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점을 보완하여 비슷한 성격과 양적으로 유사한 두 언어의 자료를 가지고 대응관계를 살펴, 보다 정확한 어휘의 구조적 특징을 밝히는 것을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삼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두산동아출판부(2006) 『프라임 일한사전』(제3판), 두산동아

14) 예를 들면, 送り火, 迎え火, 秋田犬, しば犬, いろおもて山猫, どさんこ, かつば(河童)와 같은 단어로 일본에만 있는 사물이나 사항 등에 관한 표현을 말한다.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2005) 『연세 한국어 사전』(9쇄), 두산동아  
운평어문연구소편(2005) 『일한사전』(2쇄), 금성출판사  
이기문 감수(2005) 『동아 새국어사전』(제5판), 두산동아  
이희승(2003)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北原保雄他編(2003) 『日本国語大辞典』(第二版 8刷), 小学館  
金田一春彦(1990) 『日本語の特質』, 日本放送出版協会, pp.120-151  
\_\_\_\_\_外編(1992) 『学研国語大辞典』(第二版), 学習研究社  
\_\_\_\_\_ (2002) 『日本語』(新版), 岩波書店  
国立国語研究所編(2003) 『分類語彙表』(増補改訂版), 国立国語研究所  
新村出編(2001) 『広辞苑』(第4版), 岩波書店  
松村明編(1992) 『大辞林』, 三省堂  
安田吉美외(2004) 『옛센스 일한사전』(제3판), 민중서림